

초기 장편고전소설에서 가문 · 왕실의 관계양상과 그 의미

정선희 *

1. 머리말
2. 가문 · 왕실의 관계양상
 - 1) 가문의 출처관(出處觀)과 지향: 청렴한 명문가, 효와 충의 실천
 - 2) 군신관계와 제위계승 문제: 법도에 기반한 견제
 - 3) 공주혼 · 황후혼: 가문의 위상과 도덕성 증명
3. 가문 · 왕실의 관계양상에서 드러나는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소현성록〉연작은 본전(本傳)과 별전(別傳) 총 15권으로 되어 있는 장편고전 소설의 초기작이다. 소씨 가문의 창달과 유지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인공 소현성과 홀어머니 양부인이 어떤 식으로 가문을 일으켰는지, 그와 아내들은 어떤 식으로 혼인하고 살아가는지, 아들과 딸들은 누구와 혼인을 하며 갈등을 겪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왔었다. 그 과정에서 주로 가문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위상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¹⁾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본고와 관련하여 주요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그 외에는 마지막장의 참고문헌란에서 제시 한다. 박영희, 1994 『〈소현성록〉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정창권, 1998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 조광국, 2001 「〈소현성록〉의 별열 성

그런데 이러한 가문 창달 서사와 가족 관계는 가문의 정체성, 지향 의식, 정치 성 등 사회적인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품에 형상화된 가문과 왕실의 관계 양상과 역학, 그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버지인 소광의 처사적인 삶에서 시작하여, 청렴하고 예와 볍도에 충실히 당당하면서도 충성을 다하는 소현성, 고집스럽고 감정적으로 왕실과 공주를 대하지만 중국에는 태자의 스승이 되는 소운성, 지혜롭고 덕스러운 황후가 되는 소수주 등의 삶과 언행, 서술자나 주변인들의 논평을 통하여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소현성은 본전(本傳), 즉 1권~4권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가고 세 아내를 얻으며 자녀들도 두게 된다. 5권에서 별전(別傳)이 시작되면 12권 중반까지는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15권까지는 딸과 손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중 셋째 아들인 운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들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²⁾ 나머지 부분에서도 운성은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³⁾ 특히 그는 명현공주와 혼인하고 사별하는 과정을 통해 가문과 왕실 간의 견제와 균형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며, 나중에는 나라가 위급

항에 관한 고찰』『온지논총』7: 정선희, 2005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한국고전연구』12: 조혜란, 2006 「〈소현성록〉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한국고전연구』13: 정선희, 2007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정선희, 2009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 〈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배달말』45: 장시광, 2009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우리문학연구』28.

2) 별전은 소현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아들 운경의 출생과 혼인담이 5권 1면에서 54면까지, 둘째 아들 운희의 출생과 혼인담이 55면까지, 셋째 아들 운성의 출생과 형씨와의 혼인담이 111면까지, 넷째 아들 운현의 출생과 혼인담이 112면까지, 다섯째 아들 운몽의 출생과 혼인담이 113면까지 서술된다. 이후 가문이 화목했고 더할 복이 없었다는 서술, 운성이 술과 기녀를 탐하며 형제들과 놀다가 아버지에게 꾸중 들은 일이 이어지면서 5권은 마무리된다. 6권에서 운성이 둘째 부인인 명현공주가 등장하는데, 그녀와의 혼인 갈등담이 8권 91면까지 무려 3권 가까이 할애된다.

3) 8권 이후에도 운성의 칩으로 소영 들이기, 유람하기, 요괴 퇴치하기, 동서인 손생 놀리기 등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서사의 중심은 운성에게 지속된다. 9권과 10권에서 일곱째 아들 운숙과 여덟째 아들 운명의 이야기가 들어간 후, 11권에서 다시 운성이 아버지를 모시고 운남을 정벌하러 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12권 중반부터 딸과 손자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에도 운성은 집안을 대표하는 오빠나 숙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는 공을 세워 왕으로 봉해지고 소현성의 사후에는 가장(家長)의 자리를 물려받기도 한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작품의 공주혼 즉, 운성과 명현공주의 혼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마의 가문과 왕실 간의 갈등과 그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곤 하였다. 부마간택이 사대부 가문원의 뛰어난 재질을 황가에 인정받는 가문 창달의 한 징표라는 면을 고찰하였고 아울러 이 공주혼은 왕실에 의해 주도되는 혼인이므로 사대부의 가부장적 규범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말하였다.⁴⁾ 또 <소현성록>에서는 공주혼과 더불어 천자의 명령과 투옥 모티프가 강화되면서 왕권과 신권의 대립,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예(禮)라는 윤리 규범 강조의 면을 읽어내고, <구운몽>에서는 공주혼이 부모 유리 모티프와 함께 주인공 개인의 능력과 그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가문 창달의 단초로도 기능하는 한편, <유씨삼대록>에서는 참소와 자책 모티프가 부각되면서 여성의 수동성과 유순성을 강조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쪽으로 모티프들이 결합되었다고 한 연구도⁵⁾ 있지만, 두 연구 모두 공주의 혼인 과정과 공주 부부의 부부로서의 갈등과 파탄, 그 의미에만 주목한 한계가 있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문과 왕실 간의 역학 관계는 공주혼뿐만 아니라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간간이 노출되는, 주인공들의 출처관(出處觀), 군신간의 관계 설정과 도리, 충(忠)과 효(孝)의 관계, 참전(參戰), 황후혼에 관한 것까지를 폭넓게 살펴야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왕권이 형제간에 계승되어야 하는지, 부자간에 계승되어야 하는지 등 제위의 계승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씨 가문과 왕실 간의 힘의 역학과 갈등 양상, 그 해소 방식, 소씨 가문의 지향하는 바에 초점을 두어 살피면서, 서술자의 의식과 향유층의 욕구와 삶 등을 함께 논하게 될 것이다.

4) 박영희, 2005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5) 이수희, 2009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구운몽>·<소현성록>·<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2. 가문 · 왕실의 관계양상

1) 가문의 출처관(出處觀)과 지향: 청렴한 명문가, 효와 충의 실천

소광-소경(소현성)-소운성으로 이어지는 소씨 가문은 대대로 명문가이면서도 사리사욕을 밝히지 않고 쳐사의 삶에 가깝게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책 읽고 글을 쓰며 가시를 지어 부르거나 학을 키우는 등 한가로이 지내는 것과 동시에 신이한 힘을 지녀서 요괴를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향하던 바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태종, 진종, 인종대에 걸쳐 높은 벼슬을 하면서 황제 이외의 모든 신하들이 우러르는 위치에 놓인다. 송나라 태종(太宗)은 태조 조광윤의 동생이며 중국의 통일을 완성하여 형과 함께 송나라의 기초를 확립한 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가 즉위한 배경에는 다소 의문점이 있어 태조를 시역(弑逆)했다고도 하고 종실(宗室)에 내분이 있었다고도 한다.⁶⁾

소현성은 날 때부터 산천이 지닌 기운과 해와 달의 정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를 타고났으며, 가슴에는 세상을 다스릴 뜻을 품었고 얼굴에는 어지러운 나라를 평안하게 할 재주가 어려 있었다고 한다. 특히 빼어난 문장과 뛰어난 절개가 당대에 으뜸이었다고 했는데 이때에 ‘절개’라고 표현한 것은 달리 말해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충성을 다하다가 죽으니 당시의 황제인 인종(仁宗)이 그가 세 임금을 받든 신하임을 슬퍼하면서 왕에게 행하는 예(禮)로 장사지내고 묘 아래에 사당을 지어 네 계절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시호를 ‘충렬공(忠烈公)’이라 하고 비문에 ‘효의(孝義)선생’이라고 새기도록 하였다고 한다.⁷⁾ 별전(別傳)이 시작되는 부분에 지금까지의 소현성의 생애를 정리해주는 서술을 보자.

6) 태종은 명현공주의 아버지이기에 이런 내용을 두고 운성이 명현공주와 그녀의 아버지 즉 장인의 윤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7) 정선희 외, 2010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19-20면. 〈소현성록〉 1권 2면 본전 별서(이 책은 이대 소장본 〈소현성록〉연작 15권 15책을 역주한 것이므로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역주본의 정보를 앞에, 원본의 정보를 뒤에 병기한다).

대송 시절에 승상 소현성의 이름은 경이고 자(字)는 자문이었다. 태종 즉위 원년(元年)에 급제하여 벼슬이 바로 옥당(玉堂)에 올라 10년 만에 우승상을 하고, 몇 년 내에 좌승상 강릉후를 하여 구석(九錫)을 겸하였다. 조정에 들어간 30년 중에서 재상으로 있은 것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정치가 고르지 않음을 보고 벼슬을 그만두고 조정에서 물러나 산림에서 지냈다. 문 앞의 여러 가지 풀은 사시사철 봄이 된 듯하고, 대숲의 맑은 바람에 한가함이 지극하여 옛 사람들이 현명하게 몸을 지키던 방법을 오로지 행하였다. 슬하에 10자 5녀를 두었는데 이른바 큰 강의 흰 진주요, 남해(南海)의 다섯 빛깔 나는 진주며, 푸른 오동나무에 깃든 난새와 고니 같았다. 어진 스승을 청하여 학문을 가르쳤다. 도연명(陶淵明)이 아들들이 공부하지 않을까 책망했던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모든 아들들이 다 옛 사람을 압도할 재주와 학식이 있었다.⁸⁾

학문이 뛰어나고 우승상, 좌승상 등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정치를 하다가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지 않자 물러나 산림에서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아들들도 모두 재능과 학식이 있어 자랑할 만하였다고 하면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가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현성이 이렇게 가문을 번성시키기 전, 그의 아버지 소광의 경우는 ‘깊은 골짜기에 사는 처사’였다. 사는 곳도 높이가 천여 길에 봉우리가 열둘이나 되는 자운산과 그 가운데에 있는 와룡담 가에 있는 집에서 살았다.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때에는 조상들이 대대로 이름난 재상들이었지만 오대(五代)에 내려와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자운산에 은거한 것이다. 송나라 태조인 조광윤이 즉위하여 법령과 정치가 갖추어지기는 했지만 처사는 끝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천자가 다시 수레를 보내고 지극한 예의를 갖춰 다섯 번이나 부르는데도 자신은 일에 얹매이지 않고 대범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으며 벼슬살이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한다. 임금이 계속 강권한다면 죽음으로써 뜻을 지키겠다고 강변하기에 다시 벼슬을 권하지 않았으며, 이 일로 모두들 그의 청렴하고 고결하며 어짊을 알게 된다.

이렇게 소광은 벼슬을 거부하면서 “골짜기에서 학을 춤추게 하고 거문고를 타며 천자의 자리를 헌신 보듯 했고, 나귀를 타고 천하를 두루 보거나 작은 배로

8) 정선희, 2010 『역주 소현성록 2』, 소명출판, 12면. <소현성록> 5권 1면.

사해를 떠다녔는데, 사나운 짐승을 산에서 만나면 한 곡조의 가사를 불러 스스로 돌아가게 했고,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면 글을 지어 읊어 교룡(蛟龍)이 항복하여 잔잔해지게 했다.”고⁹⁾ 한다. 이렇게 신선 같고 깨끗한 이미지이면서도 기이한 힘을 지닌 인물이 소현성의 아버지이며, 이러한 인간상은 소현성이나 운경, 운성 등에게로 이어진다. 그들은 집에서 한가로이 있을 때는 처소를 도사의 거처처럼 해놓고 학을 키우며 음악과 시로 소일하며,¹⁰⁾ 유람할 때에는 요괴가 스스로 물려나거나 항복하게 하는 신이함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현성의 대에 이르면, 십대 초반에 과거에 급제하여 이후 조정의 큰일과 어려운 조서 등을 조용하고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 원로대신들과 사리에 밝은 재상들도 미치지 못하니 만조백관이며 천자가 더욱 중하게 여기게 된다. 호광 지역의 순무사로 부임해서도 몇 개월 만에 도적을 다 토벌, 계도하고 살기 좋게 만드니 백성들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로 재주와 인품이 뛰어난 관리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차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 가장 명망 있는 가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고, 운성에 이르면 왕의 직위를 받기도 하며 땀 수주는 황후가 되는 것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그렇다면, 소현성 가문의 지향은 무엇일까? 이 가문은 무엇보다도 효도를 제일의 가치로 삼고 있는 가문이며,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남기게 된 이유도 “사람의 어미 되어서는 공의 모친 양씨 같고, 자식이 되어서는 공처럼 효도하기를 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이 방탕하고 무식하여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불효자라고 해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¹¹⁾ 했다. 이

9) 정선희 외, 앞의 책, 26면. 〈소현성록〉 1권 5-6면.

10) 소현성이 서헌(書軒)에 거처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서헌 백화정에 이르렀다. 두 쌍 동자가 난간 밖에서 학을 길들이고 있고, 구슬로 만든 발을 높이 걷었는데 향로의 향내가 그윽했으며 주변에는 만 푼 경서를 쌓아놓고 거문고를 비스듬히 세워 두었다. 몸이 마치 신선의 공간에 오른 듯한 곳인데 생이 책상에 『주역』을 펴놓고 자미수(紫微數)를 점치고 있었다. 그윽한 대청 가운데 발이 드리운 그림자가 몽롱한데 생의 백옥 같이 훤 살찌과 복숭아 같이 붉은 입술은 분명 신선이 꽃과 나무 가운데 떨어진 것 같으니(정선희 외, 앞의 책, 69-70면. 〈소현성록〉 1권 53-54면).”

11) 정선희 외, 앞의 책, 20-21면. 〈소현성록〉 1권 2면 본전 별서.

령게 효성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소설이니 만큼 작품 곳곳에서 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나라에서 관장하는 과거 시험의 기강보다도 효도를 강조하는 장면도 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소현성이 다섯 선비를 만나는데 그들은 글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모의 바람, 병환 중에 있는 아버지의 희망 등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급제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시험지를 대신 작성해 주어 2등에서 6등을 차지하게 해준다. 그들의 부모 위하는 마음에 감동하여 나라의 기강을 훌트리는 일도 마다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태종 황제가 죽었을 때에는 집안의 부녀자가 모두 소복을 입고 소승상과 여러 아들들이 통곡하며 슬퍼한다. 특히 소승상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였고 호방한 운성도 눈물이 가득해 상복이 젖을 정도였다고 한다. 운성에게는 장인이었지만 공주로 인해 적대시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신유의(君臣有義)는 오륜(五倫) 가운데에서 으뜸입니다. 사람 된 자가 국가의 녹을 먹고 천恩(天恩)을 입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데 이제 황제께서 돌아가시니 신하된 자의 망극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슬퍼한다.¹²⁾ 소승상은 1년이나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고 흰 옷을 3년이나 입고 탈상(脫喪) 때까지는 부인을 보지 않을 정도로 상례(喪禮)를 극진히 한다.

나라에 적이 침입하거나 황제가 위험에 빠지면 곧바로 나서는데, 태종이 돌아가고 진종이 황제가 된 뒤 위보동대로 놀러 갔다가 거란족 즉 요(遼)나라의 무리에게 둘러싸이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조정에 남아 있던 소승상이 태후, 황후와 태자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각 처에 급히 알리는 글을 보내 임금께 충성을 다하라고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십만 명의 병사를 모아 그 지역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때 또 운남국이 반역하여 쳐들어오니 더욱 위급한 상황이 되어 그 전장(戰場)에 직접 가서 군사를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십만 명이나 되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은 소승상뿐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 되지만, 승상은 효성이 지극하기에 노모(老母) 곁을 떠나는 것을 오래도

12) 허순우 외. 2010 『역주 소현성록 3』, 소명출판, 214면. <소현성록> 9권 94면.

록 주저하다가 나라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여 출전하기로 한다. 슬퍼하는 승상에게 태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여 군신유의(君臣有義)가 가장 큰 덕목임을 강조한다.

“군신유의(君臣有義)는 오륜(五倫)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네가 일찍이 천자의 은혜를 입었기에 여태껏 대신으로 지내는 것이고 여러 아들이 다 관직과 녹봉이 과중한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은혜를 갚아야지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려 하느냐? 하물며 임금께서 허락하셔서 네가 평소에 내게 효를 극진하게 행하였으니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 때 충성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는 생각이 낡고 쓸모없는 선비처럼 변변치 못한 행동을 하지 말라.”¹³⁾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승상은 20만 대군을 모아 전장에 나가 운남의 항복을 받는다. 황제가 무사히 돌아와서는 승상을 진공에 봉하고 공적을 치하한다. 승상이 자신은 신하의 도리를 다한 것일 뿐이라며 사양하자, 황제가 봇으로 글을 지어 칭송하고 소씨 가문 동네 어귀에 충혼문(忠魂門)을 세우라고 한다. 함께 전장에 나갔던 운성도 높은 관직과 큰 고을을 식읍(食邑)으로 받는다. 이렇게 소씨 가문은 효성을 제일로 삼으면서도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본분도 충실히 행하는 것을 지향한다.

2) 군신관계와 제위계승 문제: 법도에 기반한 견제

소씨 가문 사람들은 관직에 있어서는 임무에 충실하고 황제와 나라를 위해 목숨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지만, 임금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간하여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예로, 소현성이 승상 직위에 있고 운성이 부마인 상황에서, 나라에 경사가 있어 황후가 후원에 술자리를 마련하자 황제가 선혜공주와 명현공주의 남편들 즉 두 부마와 사돈을 부른다. 운성은 병을 핑계로 가지 않고 승상만 갔는데, 황제가 궁궐의 풍요로운 풍류를 보이자 정색을 하고 아뢴다.

13) 위의 책, 336면. 〈소현성록〉 10권 137면.

“신이 처음에는 폐하가 군신과 함께 변방을 근심하시고 장졸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는 것을 의논하시고자 하십인가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술을 마시고 화평하게 즐기면서 변방에 있는 장졸들과 백성의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으실 줄 알았겠습니까?”

황제가 깨달아 사례하며 말하였다.

“요사이 북한(北漢)을 평정한데다가 요(遼)가 새로 침범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 경들과 함께 즐기며 시름을 잊고자 하였더니 승상의 말이 옳구나. 짐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드디어 풍악을 물리치고 조용히 정사(政事)를 의논하고 석양 무렵에 흩어졌다.¹⁴⁾

나라에 적이 들어와 싸움이 한창이어서 장수와 병사들이 힘들어 하고 백성들이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즐겨서는 안 된다는 승상의 간언에, 임금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술자리를 접는다. 사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승상의 위상이 높다는 말도 될 것이다. 소승상은 또 명현공주로 인해 무고한 형씨 부녀가 벌을 받아 형참정은 남만(南蠻) 땅으로 유배 가고 형씨와 형씨의 두 아들은 사약을 받게 되자, 황제께서 덕을 읽으셨으니 빨리 가서 간언을 드려야겠다고 한다. 지금 황제의 화가 크니 그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큰 일이 날 것이라고 가족들이 말려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죽기로써 간하는 것이 도리”라면 서 궁궐로 가 황제께 일의 선후와 공주의 잘못을 낱낱이 말한다. 공주가 혼인하여 와서도 부녀의 도리를 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예의를 갖추지도 않으며 형씨와 운성을 죽이려 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고 아뢴다. 그런데도 황제께서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형씨 부녀에게 죄를 무겁게 주신다 하니, 폐하의 어질지 못하심이 슬프다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공주 또한 참수하시어 정사(政事)를 바로잡으시라고 간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황제도 높이 놀라면서 마음을 돌려 형씨 부녀와 운성을 용서한다.

한편, 황제의 도덕성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탄식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위(帝位)의 계승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여 주목할 만하다. 태종이 태조의 태자인 덕소(德昭) 즉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말이¹⁵⁾ 있었기에 소

14) 위의 책, 67-68면. 〈소현성록〉 8권 58-59면.

15)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篇)』에 실려 있는 기사를 참고하면, 태조가 위독하자 그의

설 속에서도 이런 논란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왕위를 형에서 동생으로 인계하느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인계하느냐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태조가 나라의 안위를 위하고 어머니인 두태후(杜太后)의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왕위를 아들에게 넘기지 않고 동생에게 넘긴 것이라고 하기도 하므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설 속 서술자와 소씨 가문의 사람들은 전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소현성은 이 상황을 “만승(萬乘)의 기업(基業)이 비록 크기는 하지만 지극히 가까운 골육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풀잎같이 하는구나. 그는 곧 태조(太祖)의 태자로 나중에 대(代)를 이을 사람이니, 그를 죽인 이유를 명백히 알겠다.”라고¹⁶⁾ 하면서 원망스러워한다. 이렇게 황제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정사를 다스리거나 시국을 논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처사 같은 삶을 살았기에 비록 벼슬이 높고 명망이 중했지만 역사 기록에는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라 되어 있다. 이후, 태종의 딸인 명현공주가 며느리로 들어오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성의 형제들, 윤성과 논란을 벌이기도 한다.

명현공주가 책을 좀 읽었기에 문득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자부하며 말하였다.

“여러 아주머니들과 부마의 논의가 지극히 옳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어진 이가 있었어도 사나운 이도 많았습니다. 당(唐) 태종(太宗)이 소날왕비(巢刺王妃)를 취했으며 건성(建成)과 원길(元吉)을 죽였으니 어찌 무도(無道)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에도 다시 있습니까? 여러 아주머니들께 묻겠습니다.”

여러 생들이 몸을 구부려 예를 표한 후 답하였다.

“공주의 높으신 견해가 옳습니다. 당태종이 소날왕비를 취한 것은 사람의 얼굴로 짐승 같은 마음을 낸 것이지만, 형제인 건성과 원길을 죽인 것은 종묘사직을 위한 것이니 구태여 그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여러 소생들이 모두 사려 깊고 공손하며 충명하고 영리하니, 모든 일을 무심

동생 진왕이 문병을 갔는데 둘이만 있는 상황에서 왕위를 맡겼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촛불 그림자로 태종과 태조의 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태조가 도끼를 땅에 던지는 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다음 날 새벽이 되기 전에 태조가 죽고, 진왕이 태종으로 즉위하게 된다.

16) 정선희 외, 앞의 책, 322-323면. <소현성록> 4권 47면.

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혐의를 받을까봐 이렇게 말하였지만 본심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공주가 의기양양하여 마음속 생각을 다 펴서 말하였다.

“우리 황상과 태조가 나라를 일으키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되. ‘지금의 상은 태조의 덕택으로 천하를 얻었다.’라고 하니 어찌 우습지 않겠는가? 하물며 우리 아버지의 용 같은 행동과 호랑이 같은 용맹함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임을 모두 아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찌 진교역(陳橋驛)에서 모든 장수들을 부추겨 천자가 된 태조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 생들이 매우 마땅치 않게 여겼지만 단지 그렇다고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운성은 격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갑자기 정색하며 말하였다.

“예부터 국가를 다스리거나 흥망(興亡)에 관해서는 부인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태조는, 혁마역(夾馬驛)의 항기와 대쪽의 글, 그리고 진교역에 두 해가 돌으며 다섯 개의 별이 모이는 것을 보고 여러 장수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 황포(黃袍)를 받들어 드린 것이니 어찌 부추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주가 예의와 사정을 모르시고 선(先) 황제를 모욕하면서 왕실과 천하를 간교하게 얻은 것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만약 그렇다면 태조는 분명히 모르시던 바이니 성상께서 여러 장수들을 부추진 것이었습니까?”

공주가 발끈하여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부마가 말을 내키는 대로 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이유 없이 황상을 모함하니 만약 죄를 다스린다면 형벌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¹⁷⁾

명현공주가 말한 부분에서 당(唐) 태종(太宗)은 당나라의 2세 황제인데, 그가 아직 진왕(秦王)이었을 때에 당시 태자였던 형 건성과 아우 원길이 자신을 시기하고 모해하려 하자 먼저 그들을 죽이고 태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원길의 아내였던 양씨를 후궁으로 맞는데 그녀의 남편이었던 원길이 소날왕으로 추봉되었으므로 그녀를 소날왕비라고 한 것이고, 태종이 건성을 현무문 아래에서 활로 쏴 죽였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건을 ‘현무문(玄武門)의 난’이라 부른다. 공주는 그 사건과 송나라 태종의 일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고, 운성의 형제들도 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성은 태종이 태조의 맏아들인 덕소(德昭)에게 갈 왕위를 가로챈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딸인 명현공주도 이렇게 박대하는 것이므로 당 태종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 송 태종은 태조의 동생이며 명현공주의 아버지이다. 공주의 논리는 태종이 태조가 송을 개국할 때에 큰 공헌을 하

17) 정선희, 앞의 책, 184-186면. 〈소현성록〉 6권 69-71면.

였으므로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굳이 태조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송 태조가 황제가 된 곳이 진교역인데, 이곳에서 여러 장수들이 당시 후주(後周) 세종(世宗)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있던 조광윤에게 황포(黃袍)를 받들어 올리고 황제로 추대했다고 한다.

이렇듯 송나라 개국과 관련하여 태조, 태종의 역할과 왕위 계승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자 갈등이 첨예화되어 윤성이 화가 나 더 말하려 하니 석부인이 꾸짖고 그만하라고 하여 겨우 그친다.¹⁸⁾ 이날 밤에 소승상도 알게 되자, 임금의 잘잘못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농봉을 먹으면 임금을 섬기는 신하로 있을 때에는 마땅치 않은 일이 있더라도 임금을 원망하지 말라고 한다. 물론 공주가 황제에게 알려 별을 받을까 우려하여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군신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도와 윤리를 우선시하기는 하지만 지나친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속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소설들과는 차별화되는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윤성은 말년에 태자를 가르치는 태사(太師)가 되는데, 이때에도 침묵하지 않고 태자에게 간언(諫言)을 하여 임금이 공신이나 친척을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논박한다.

“자고로 성군(聖君)은 정사(政事)를 돌보는 것에는 훌륭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군들은 가까운 친지들을 해아리지 않고 죽였으며 혹 공신(功臣)에게 형벌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어진 행동은 아닌 듯합니다.”

태자가 몸가짐을 조심하며 단정히 앉아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는 인정(仁情)이 없으니 가까운 친척과 공신을 죽이는 것을 한가지로 논하여서 사납다고 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법을 사용하면 어짊과 덕을

18)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나중에도 윤성은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온 세상이 태평함이여. 궁전 위에는 근심이 없구나. 근심이 없음이여. 신하의 인륜을 휘젓는구나. 형편의 난처함이여. 내가 능히 정을 끊지 못하고 저가 능히 사랑을 원하지 않는구나. 저가 비록 자기를 낫추어 죽을지언정 내 고집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네. 웃지 말고 웃지 마라. 내가 이미 당(唐) 태종(太宗)과 당(唐) 명황(明皇)만 못하다면 어찌 두 사람의 주접스러움을 비웃겠는가? 아아! 슬프다. 이것도 또한 하늘이 내린 운수로다(정선희, 앞의 책, 259면. <소현성록> 7권 43-44면).”

잃으면 어진 신하를 죽이면 오히려 어질지 못한 것입니다. 주왕(紂王)이 비간(比干)을 죽이니 이른바 포악한 것이며, 주공(周公)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베었으니 이른바 성인입니다. 대개 사람이 행실과 덕을 닦아 일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거나, 성인이 잘못된 일을 하면 후세에 시비(是非)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을 말하더라도 선생과 과인이 자못 이렇듯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과인이 덕을 잃으면 선생이 이윤(伊尹), 곽광(霍光)과 같이 일을 해야 옳고, 만일 선생이 잘못하면 과인이 당당히 다스릴 것입니다. 사사로운 정으로 차마 어찌지 못하여 정사(政事)가 잘못되면 괴자 모두 어질고 약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¹⁹⁾

태자의 생각은, 비간처럼 충신이고 숙부인데도 자신의 음란함을 간했다고 해서 신하를 죽인 주왕(紂王)은 포악한 것이지만, 관숙과 채숙처럼 주 무왕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른 성왕과 주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신하는 죽여도 된다는 것이다. 즉 법대로 하면서 사사로운 정을 두지 않고 행한다면 가까운 친척이나 공신이라 해도 죽일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스승인 운성도 잘못을 하면 당당히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화가 끝나자 듣던 소씨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된다. 요컨대 소씨 가문은 군신의 관계에 있어 신하의 충성은 필수이지만 임금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 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왕실의 일원인 공주나 태자는 현 왕권의 왕위 계승과 공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측근 신하라 해도 잘못이 있다면 법대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3) 공주혼·황후혼: 가문의 위상과 도덕성 증명

공주혼이나 황후혼에 관한 이야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군신관계에 해당하지만, 따로 다루기로 한다. 〈소현성록〉에서 공주혼은 소현성의 셋째 아들 운성과 명현 공주의 혼인인데, 공주는 작품에서 가장 불쌍하게 죽어간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남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음란한 여성으로 평가되었고 친정아버지인 황제의 윤리성이 의심되면서 혼인 초부터 남편의 냉대를 받았으며 식구들의 은근한 소외를 당해야만 했다. 중심 가문의 아들과 공주와의 혼인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양상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본다.

19) 정선희 외, 2010 『역주 소현성록 4』, 232-233면. 〈소현성록〉 14권 6면.

공주는 혼인을 해서 시가에 와서도 황제의 권위를 업고 자기의 권세를 믿는다. 그리하여 시아버지의 가부장권과 남편의 가장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 이에 지지 않고 운성도 공주를 녹록하게 대하지 않고 심지어 그녀를 불행하게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밀어낸다. 혼인 초반부터 가문과 왕실의 힘겨루기는 팽팽했는데, 운성의 정실인 형씨를 출거하고 공주가 정실로 들어오려 하자 황제에게 그 부당함을 말하는 소승상의 표문이다.

저희 부자(父子)가 거룩하신 천자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국가의 중요한 신하가 되었기에 할 말을 품고 아뢰지 않을 수가 없어 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에게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으면 내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부귀를 탐하여 아내를 버린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이 침 뱉고 꾸짖지 않겠으며, 또한 주상전하의 크신 덕이 광무제(光武帝)보다 못하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갓 며느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전하의 크신 덕이 상하실까 두려워 천하의 공론(公論)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하께서 굳이 형씨를 내치라고 하신다면, 운성이 전하의 은혜를 입어 부마의 영화와 귀함을 얻기는 하겠지만 선비 중의 신의 없고 행실이 옛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폐하께서 사위를 택하심이 잘못되게 되고 공주도 남의 인륜을 어지럽힌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께서는 보통 사람의 신의를 유념하시어 사사로운 정을 알맞게 쓰시고 형씨를 용납하시어 예의를 잃지 않게 하십시오. 공주가 비록 높으시지만 혼례를 치러 운성의 별채에 계실지 언정 진실로 감히 형씨의 지위를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주십시오.²⁰⁾

정실이 있는데도 그녀를 내치고 공주를 정실로 맞으라고 하니 그렇게 되면 운성은 신의 없는 선비가 될 것이며, 공주도 인륜을 저버리게 한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니 형씨의 정실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승상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성화에 못 이겨 황제는 승상의 관직을 사탈하고 금의부(禁義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기어이 혼인을 성사시킨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의 혼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진 운성은 공주를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소외시키며, 그런 대응에 공주는 날로 난폭해져간다. 운성이 데리고 노는 창기들의 코와 귀를 자르는가 하면 형씨를 핍박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는

20) 정선희, 앞의 책, 134-135면. 〈소현성록〉 6권 10-11면.

것이다. 형씨를 사모하는 마음이 병이 된 운성을 문병 간 공주가 운성이 미워어서 죽으라고 악담을 하자, 운성은 다음과 같이 공주의 잘못된 점을 말한다.

“오늘 당신이 죄를 들춰 말하는 것을 들으니 죽히 당신의 사람됨을 알겠소. 나도 또한 할 말이 있으니 편히 앉아 들으시오. 그대가 당초에 여자의 몸으로 외전(外殿)에 자주 출입하여 앞뒤의 예법을 잊은 죄가 하나요, 내 얼굴을 보고 문득 흄모하여 갑자기 수백 명의 관원들을 세워놓고 지아비를 선택하였으니 읍란한 죄가 들이요, 황상의 뜻을 부추겨 나에게 조강지처를 폐출하고 돌아오라고 했으니 그 의리를 모르는 죄가 셋이오. 또 나중에 내 아버지의 상소가 올라오니 문득 아버지를 가두라고 권하여 황상께서 화를 내시게 하였는데 이는 그 아버지를 가두고 그 아들의 아내가 되려고 한 것이니 현명하지 못한 죄가 넷이오. 또 내 집에 와서 검소함을 비웃고 사치함을 자랑하며 궁인들에게 내 형수와 제수를 욕하게 하였으며, 이파와 석파를 동급으로 여기고 자기를 높여 할머님과 마주하고 앉아 시댁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위아래의 체면을 어그러뜨렸으며 높고 낮은 체계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다섯입니다. 또 내 창녀에게 가혹한 형벌을 더하여 인체(人彘)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포악한 죄가 여섯이고, 나에게 형벌을 더하겠다고 하면서 인면수십(人面獸心)이라고 하였으니 죄가 일곱입니다.

지금 도리어 내 죄를 헤아리며 조금도 여자의 조심하는 빛이 없으니 이는 사랑이의 마음과 호랑이·뱀 같은 사람됨입니다. 세상에 용납되지 못할 죄를 짓고 무슨 면목으로 여기에 이르러 말을 꾸며 책망합니까? 내가 지금 조강지처(糟糠之妻)를 잊지 못하는 것이 어찌 공주가 외간 남자를 보고 사모한 것만 못하며. 또 당초에 상소를 올려 아버지를 구한 것이 어찌 공주가 시아비 가둔 일과 비기며, 임금을 받들어 섭기고 부모를 효성스럽게 봉양하는 것이 어찌 공주가 할머니와 마주 앉고 지아비에게 죽으라고 하는 행실에 견주겠습니까? 내가 비록 은근하지는 않았지만 공주를 공경스럽게 대하고 궁인을 대접한 것이 어떻게 공주가 다섯 창기의 귀를 베고 코를 깎은 형벌과 비교되겠습니까? 사람이 귀천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르기는 하겠지만 공주가 만약 황제의 따님이 되지 못하고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 남에게 귀와 코를 깎았다면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나에게 와 책망하니 어찌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충효(忠孝)와 신의(信義)를 지켰으니 어찌 사람 보기 부끄러우며, 몹쓸 것과 함께 즐기지 않았으니 장부의 위엄을 잊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나와 부부라는 혼된 이름이 있지만 실은 남이니. 방에 들어와 가까운 사이처럼 책망하는 것이 낯설고 투기하는 것이 우습습니다. 공주가 늘 대궐을 등에 업고 유세하지만 상께서 신하를 마음대로 죽이시겠습니까? 또 가령 죄를 내리신다 해도 설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주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죽은 후에는 형씨와 한 무덤에 묻힐 것이니 그가 아니면 누가 감히 내 관곁에 묻히겠습니까?”²¹⁾

21) 정선희, 앞의 책, 207-208면. 〈소현성록〉 6권 99-101면.

여자로서 조심하는 면이 없고 사나우며 잔인하고 음란하며 예의를 모르는 것이 공주의 죄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들은 공주는 당황하여 나가면서 운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마음먹는다. 또 공주는 운성이 자기에게 냉담한 것이 자기를 양잡아 보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인 임금에 대한 불경함이라고 생각하여 운성은 역적이라고 하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주가 아무리 폐악스러워도 공주를 잘 대하라고 조언하는 형씨에게 운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그가 혼인 초부터 공주를 홀대했던 이유가 보다 자세히 드러나 있다.

“진심이었다면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저 명현공주가 비록 무염(無鹽) 땅의 추녀 같은 얼굴과 동시(東施)같은 어리석음이라도 그 혼인을 바른 방법으로 했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이처럼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나를 보고 사모하였으며 당신을 쫓아내라고 성상을 부추겼으며 아버지를 가두도록 계략을 꾸며 위세를 끼고 호령하면서 위엄으로 나를 팝박하여 부마를 삼았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 젊고 식견이 없지만 어찌 여자가 팝박하는 위엄을 공손하게 받아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물리치고, 또 아버지가 간혀 육보신 일을 짹 잊어버리고 음란한 아녀자의 욕심을 돋겠습니다. 요사이 사람마다 나를 실성한 사람이라고 웃지만 내가 실성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조정에 나가면 다르지 않으니 나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실성한 마음 가운데에 집념이 있으니 간사한 사람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부인이 공주를 어진 성덕을 지녔다고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니, 일부러 나를 떠보려는 것이며 저를 조롱하는 것이지요? 나, 소운성이 손에 붓을 희롱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는 하지만 음란한 계집은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저가 망측한 뜻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 마치 깔주린 나비 같고 용렬하고 세속적인 사람이 부귀에 미혹된 것 같아 자기 미모를 믿고 위세를 끼 우김질로 나를 부마로 삼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내라도 어수룩하게 거짓되고 사악한 형국에 빠지겠습니까? 맹세컨대 그녀의 음란한 몸이 잘려 온 천하의 후세에 음란한 여자들에게 음란함을 꺼리고 두려워하게 하여 규방의 풍속을 가다듬게 하는 것이 내 뜻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사리로써 말하지만 다 귀 밖으로 들리니 자잘한 곡절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또 임금님이 나를 업신여기시어 인륜을 어지럽하시더니 나중에는 공주의 평생을 돌아보시어 그대를 둘째 부인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공주의 평생을 방해하여 황제와 황후의 마음이 범낮으로 평안치 않게 할 것이고, 또 공주의 인륜을 마치게 하여 부부의 정을 모르게 만들 것이니 부인은 모름지기 허탄하게 여기지 말고 부질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²²⁾

22) 정선희, 앞의 책, 272-273면. 〈소현성록〉 7권 58-60면.

흔인을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가두어서 욕보였으며 조강지처를 버리게 했으니 음란한 여자가 욕심을 부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이를 분하게 여겨 그 사악함에 맞서겠다고 하면서 그녀를 평생 방해하고 황제와 황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공주가 부부의 정을 모르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들은 형씨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공주를 원망하느냐고 책망하자, 그녀가 임금을 끼고 공주 지위를 자랑할지언정 지아비 중요한 줄을 모르고 지아비 손에 평생이 좋고 나쁨이 결정됨을 알지 못하니 더욱 고초를 겪게 할 것이라면서 죽을 때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공주가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더욱 화가 난 공주는 더욱 포악해지고 둘의 사이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급기야는 공주가 시할머니인 양부인과 시어머니인 석부인에게 욕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죽으라고 발악하기에 이른다.²³⁾ 이때까지도 참던 승상은 공주가 “네가 양씨의 폐악함을 본받으며 자라 예의를 모른다.”라고 한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공주를 잡아내려 사옥(私獄)에 가두라 하고 그 죄를 아뢰는 상소를 쓰며 형부상서를 부르고 법전을 찾아오라 한다. 즉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를 모욕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승상의 상소를 본 황후는 그가 공주를 팍박한다고 노여워하지만, 황제는 그의 성품과 위엄을 알기에 승상을 좋은 말로 위로하여 화를 가라앉히자고 제안한다. 황제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신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며, 그가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한 발 물러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제가 공주를 국법으로 다스리고 형씨는 첫째부인으로 지위를 올리라는 전교를 보내자 승상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공주가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집안의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²⁴⁾

23) “필부(匹夫) 소경아, 네가 무슨 이유로 내 허물을 성상께 참소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 칼에 죽으리라(허순우 외, 앞의 책, 76면. 〈소현성록〉 8권 66면).”

24) “(전략) 내가 이미 부모를 위하여 분노해 며느리를 죽이고자 하는데 어찌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비록 친자식과 다르나 또한 자식입니다. 어찌 내 손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더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내가 집안의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은 얼음과 옥에 비겨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공주가 내

왕족인 팔왕이 오고 가족들도 함께 승상을 회유해도 그는 공주가 강상(綱常)의 죄인이기에 황제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완강히 맞선다. 그러나 양부인이 용서해주라고 하자 그제야 죽이겠다는 말은 거두고 명현궁에 가둔다. 하지만 이제 공주가 화병이 나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운성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져 그가 병문안을 오면 너의 고기를 먹고 말겠다며 욕을 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면서 병이 날로 깊어진다. 공주가 불쌍하다 여긴 운성이 문안을 가면 철여의(鐵如意)로 때리기도 하고, 운성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얼굴을 찌르기도 하는 등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다가 19세의 젊은 나이에 죽는다. 염습(殮襲)하면서 보인 공주 팔의 앵혈(鰲血)을 보면서 다들 불쌍해 하지만, 운성은 4~5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다가 죽었으니 시원하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소씨 선산에 묻히지 못했고, 운성은 황제가 하사한 명현궁도 허물어 버려 그녀의 자취를 완전히 지운다.

이상의 공주혼에 얹힌 갈등 양상은 비단 공주와 운성 부부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씨 가문의 가장(家長)인 소승상과 황제까지 연결되어 가문과 왕실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문의 위세가 왕실 사람인 공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가문의 법도와 삶의 방식을 관철시킬 만하다는 것

집을 더럽히는데 만일 꾸짖어 돌려보내면 반드시 긴 허를 놀려 거짓말로 참소를 할 것이니 임금이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화근이 찾을 것입니다. 또한 공주는 여염집 여자와 달라 후대하고 공경할 적에는 극진히 하지만, 한편으로 다스릴 적에는 소홀하게 못할 것이니 어찌 금지우엽이라고 해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부가 되어서 며느리에게 암도당하고, 심지어 선친(先親)과 편모(偏母)를 욕 먹인 후에 오히려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여 작은 호의와 인정을 두어 부모가 모욕 받은 것과 내 몸의 구구한 것을 감수하고, 스스로 성인의 가르침에 더러운 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해서 이 일을 깊이 감추어둔다면 성인과 경전의 가르침에 해롭지 않으며 후세 사람이 나의 뜻을 꾸짖지 않겠습니까? 만일 나보고 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사람 중에서 며느리에게 아버이를 욕보이고도 위세와 호의를 끼려 입을 봉할 자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하는 것에서 비로소 이 행동이 생겼으니 차라리 지나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구차하게 못나고 불효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 사람은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기 위해서 자식을 묻었는데 하물며 내 부모를 욕하는 자식을 죽이려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명공의 가르침이 이에 이른 것은 생각하지 못한 바입니다. 감히 말씀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허순우 외, 앞의 책, 80-81면. <소현성록> 8권 70-71면)."

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후반부에 형상화된 황후흔은 공주흔과는 달리 가문의 위상을 제고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황후흔은 두 경우가 제시되는데, 하나는 소승상과 의남매 사이인 윤부인의 딸이 진종황제의 황후가 되는 것이고,²⁵⁾ 또 하나는 소승상의 딸 소수주가 인종 황제의 황후가 되는 것이다. 이 두 황후흔을 설정함으로써 더욱 높아진 소씨 가문의 위상을 증명함과 동시에, 황후 꽈씨의 악행을 무한히 참아내면서 선한 마음과 행실을 보이는 소황후의 인품을 통해 가문의 도덕성까지 최상인 것을 증명한다.

특히 소황후는 석부인의 딸로 소승상의 자녀 10자 5녀 중 막내이다. 석부인의 꿈에 태음성(太陰星)을 삼키고 태양의 정기를 쏘이더니 20개월 만에 낳았다고 하는 딸이다. 그녀의 신비로움을 배가하려고 스무 달을 임태한 것으로 했을 텐데, 그녀는 태어나서도 어릴 때부터 염숙하고 단정하며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성품을 지녔으며 문학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읽는 것을 부지런히 하는 여성이다.²⁶⁾ 검소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이고 중국의 여와(女媧)처럼 위풍이 있어 여자 가운데 성인군자라고 칭탄 받고는 했다.

인종 황제가 태자였을 때에 3만여 명의 후보 중에서 태자비로 간택되었지만, 그녀가 10년 후에야 복이 펴지는 관상이라 해서 정궁(正宮)이 아닌 귀비(貴妃)가 된다. 정궁은 꽈씨가 되었는데 그녀는 성품이 악하고 투기가 심하여 소귀비를 비롯한 후궁들을 핍박하고 후당에 가두어 귀비는 6년 동안이나 황제의 얼굴

25) 진종황제의 정궁(正宮) 장황후가 승하하셔서 황후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궁궐이 처량하니 재상의 딸들 중에서 황후를 간택하려 하였다. 소씨 가문 여자들은 다 어리고 오직 예부 상서(尙書) 한공의 딸과 강정(強定)의 학사(學士) 유공의 딸만 간택될 나이였다. 태학사(太學士) 유공이 하늘과 백성의 뜻을 따라 황후의 자리에 추천하니, 이 사람이 곧 장현 명숙황후였다. 재주와 용모를 두루 갖췄고 덕과 위엄이 있고 엄하면서도 바르니 진종이 지극하게 대하여 주시고, 온 조정대신과 백성들이 공경하여 우러러 사모하였다. 국법에 따라 부친 유학사에게는 동제왕을, 모친 윤씨에게는 왕비의 직책을 내리셨다. 온 집 안에 영광이 가득하니 이것이 다 소현성이 선행을 쌓은 덕분이었다(허순우 외, 앞의 책, 309면, 〈소현성록〉 10권 104면).

26) 정선희 외, 2010 『역주 소현성록 4』, 228-229면. 〈소현성록〉 14권 1-2면. 소황후는 여기서 처음 소개되어 15권 78면에서 임종을 맞는다.

을 못 보고 지낸다. 나중에 황제 곁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에 황제는 소귀비를 보면 풍정을 감추고 얼굴빛을 정돈하고 옷을 단정히 하는 등 무례하거나 거만하게 대하지 않고 어렵게 여기면서 공경한다. 아내지만 존대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인데, 그녀를 사랑하는 정도 깊었기에 그 모습을 대하면 뜻이 무르녹고 정이 솟아 늘 소중히 여기셨다는 서술이 종종 나온다. 소귀비는 황제가 자신을 너무 자주 찾아오자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고 이후에는 태후를 모시는 것을 평계로 하여 태후전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북궁(北宮)에서 홀로 지낸다. 황제가 극구 말렸지만 귀비의 고집으로 가서 한가롭게 시사(詩詞)를 지으며 세상일을 잊고 지낸다. 그녀를 위해 황제는 황금 만냥과 채단 백 수레를 상으로 내리고 호위 군사를 천여 명이나 거느리게 하는 등 넘치는 사랑을 베풂다. 서술자는 이 모습을 16세의 홍안박명으로 깊은 궁궐에 있게 되니 매우 슬프다고 했지만, 귀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공간에서 평안하게 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괴후가 투기를 부리다 실수로 황제의 뺨을 쳐 폐위된 뒤 소귀비가 정궁이 되는데, 여전히 소박하게 지내면서 자신을 포함하는 무리들도 용서하는 아량을 보인다. 황제가 그녀를 매우 공경하면서 정사(政事)를 돌본 후에는 황후에게 와 시간을 보내자 자신에게 침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간언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황제가 여러 후궁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주니 그 공덕을 기리는 노래가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궁궐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투기하지 않는 여인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만인의 귀감이 된 것이다. 죽음에 임해서는 자신으로 인해 의원이 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치료를 거부하다가 임종을 맞는 등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문학적이고 탈속한 여인으로 그려진 소황후는 소씨 가문의 지향과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죽고 나서도 인종은 세월이 오래 지날수록 그녀를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니 사람들이 지음(知音)이 지극한 부부였다고 할 정도였다. 이 인종 황제가 바로 <소현성록>을 짓게 한 사람이므로 아내 소황후와 장인 소현성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3. 가문·왕실의 관계양상에서 드러나는 의미

지금까지 필자는 초기장편소설인 〈소현성록〉연작에서 드러나는 가문과 왕실 간의 관계 양상에 대해 살폈다. 소씨 가문의 위상은 청렴한 명문가로 자리매김 되었고 효를 제일 덕목으로 실천하려 하지만 나라의 위급함은 솔선수범하여 구하는 충성심도 지니고 있어 이 둘의 조화를 잘 보여주었다. 또 임금에 협조적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직언하면서 법도에 맞게 행동한다. 특히 황제의 제위 계승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하고 그 딸인 공주와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결코 녹록치 않은 가문의 위상과 도덕적 우위 등을 담아내려 하였다. 이러한 가문의 지향과 위상은 이 가문으로 시집 온 공주, 이 가문에서 왕실로 시집 간 황후의 서사를 통해 집약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소현성의 셋째 아들인 운성이 공주와 혼인할 시기는 소씨 가문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아직 확고하게 그 지위를 세우지 못했을 때이기에 왕실이고 지존인 공주와 부마의 힘겨루기를 통해 가문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입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에 더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듯하다.

하지만 가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번성하게 된 후, 즉 열다섯째 자녀인 소수 주가 혼인할 무렵에는 왕실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가문 구성원의 인품과 자질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황후혼을 통해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운성과 그 조카 소세명의 일화를 통해서 이 가문이 이제는 핏줄보다도 임금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시하게 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운숙의 아들인 세명이 역적의 무리 수천 명과 함께 나라를 배반하여 기주에서 난을 일으키자 운성이 출전하여 석궁으로 세명의 눈을 맞혀 죽인다. 시신을 보고 슬퍼하는 운숙에게 “(전략) 천신만고 끝에 내가 그를 죽였으니 이는 우리 가문으로서 천만다행한 일이다. 너는 마땅히 그 주검을 본 후에 머리를 베어 임금께 드려 충성을 표해야 할 것이다.”라면서²⁷⁾ 울지 말라고 한다. 가문의 도덕을 버리고 나라를 배반한 죄를 가문의 수장으로서 직접 엄하게 다스

27) 정선희 외, 앞의 책, 292면. 〈소현성록〉 14권 76면.

리는 것이다.

이 작품은 옥소(玉所) 권섭(權燮)의 어머니 용인 이씨(1652~1712)가 필사한 것이 선본(善本)으로 남아 있는데, 그 가문은 서인 노론계이다. 또 권섭의 종질(從姪)인 권정성은 은진 송씨와 혼인하였는데 그녀는 송준길의 증손녀이기도 하다.²⁸⁾ 창작자도 필사자인 용인 이씨 주변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에 이 작품에는 서인들의 신권(臣權) 강화를 유도하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서 특히 사혼녀(賜婚女) 갈등은 17세기의 사대부문별과 왕권의 갈등을 우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아왔다. 일반 혼인과는 달리 종친혼(宗親婚)에서는 종친이 원할 경우 사대부가의 의사에 관계없이 혼인이 성립되었기에 갈등이 많았던 것이다.²⁹⁾

하지만 작품에서처럼 공주가 직접 부마를 택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없었는데도 이렇게 설정하고 혼인과정에서 시아버지가 될 소현성이 감옥에 갇히는 등 극한 상황을 만든 것은 부마인 윤성과 그 가족들이 공주에 대해 반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관점으로는 여성이 남성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터무니되었으므로 이를 행한 공주는 음란한 여성이고 그렇기에 남편이 박대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든 것이다. 실은 가문과 왕실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것 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보이게 한 장치이기도 하며, 일반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명현공주처럼 시집온 가문의 풍습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온 가족에게 배척되다가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구운몽〉의 난양공주나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처럼³⁰⁾ 시집 가문의 예를 잘 따

28) 박영희, 1994 앞의 박사학위논문.

29) 박영희, 2005 앞의 논문.

30) 진양공주는 작품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시가인 유씨 가문에 잘 동화되었고 사후에까지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의 박대와 폭행까지 당하는 등 심한 수난을 겪었고 스스로 곡기를 끊어 죽어간 것을 자결로 봐도 무방하다는 견해(장시광, 2009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어문론총』 51)를 참고한다면, 그녀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런 면에서는 〈소현성록〉의 명현공주와 비슷한 면이 있다.

르면서 조화롭게 융화되는 경우와 비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명현 공주는 며느리나 아내로서 가족과 화합하지 못하고 가문의 풍습을 따르지 않다는 문제로 주목받아왔지만, 실은 그녀의 아버지인 황제가 제위를 계승했을 때에 조카를 죽였다는 윤리적인 부도덕성을 시아버지 소현성부터 남편인 소운성까지 마음에 담아두고서 그녀를 소외시키거나 공격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현성록〉연작을 필두로 한 초기 장편고전소설들과 달리, 조금 후대에 지어진 통속적 장편고전소설들에는 군주들이 형상화되어 앞선 작품들의 공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³¹⁾ 〈조씨삼대록〉에는 천화군주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주동 가문인 진왕 조무의 셋째 이들 운현을 사모하여 장씨로 신분을 바꾸어 그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여성이다. 첫째 부인을 해치려고 요승(妖僧)까지 불러들여 악행을 저지르다가 밭각되어 변방으로 유배되는데 그곳에서 오랑캐인 촉나라의 왕비가 되어 살다가 운현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녀도 명현공주처럼 남자를 먼저 선택했다고 하여 ‘음녀’라고 지칭되며 작품 속에서 가장 극악한 악녀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나라를 침범하려고까지 하는 반역자로 설정되어 있어 명현공주보다 한층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임씨삼대록〉의 옥선군주도 임창홍에게 반하여 먼저 선택했으며 이 때문에 남편의 냉대를 3년이나 받았고 음란한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공주나 군주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믿고 남편을 먼저 선택하여 혼인하지만, 주동 가문의 소가장(小家長)인 남편은 그녀에게 녹록하지 않으며 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주변 가족들은 무관심하거나 은근히 부마의 편을 들으로써 공주의 소외는 커진다. 그 과정에서 공주는 가문의 생활 방식이나 서열, 가치관 등에 대해 논란을 거치고 동화되거나 배척되었는데, 이는 장편고전소설에서의 자기 가문 중심주의가 왕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표지로 기능하였다.

31) 이들 장편고전소설에서 공주와 군주의 인물형상화와 서사적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후고를 준비 중이다.

4. 맷음말

17세기 중후반에 지어졌다고 하는 초기 장편고전소설의 대표작인 〈소현성록〉 연작은 소씨 집안의 가문 세우기와 번성, 계승에 관한 작품이다. 소씨 집안의 1세대 소광은 처사로서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이지만, 그 아들 소경 즉 소현성은 흘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관직을 역임하면서 임금의 신임과 다른 신하들의 존경을 받는 고관대작이 된다. 하지만 임금이나 왕실에 굽히거나 아첨하지 않는 올곧은 신하의 모습을 보이며, 자기 가문의 일원과 관련된 일이나 예의와 법도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강하게 반응하면서 왕실을 견제하고 자기 가문의 위상과 도덕성을 증명한다.

이 가문은 효성을 제일의 가치로 실천하면서도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본분도 잃지 않는데 변방에 오랑캐가 침입하거나 역적이 반란을 일으키면 즉각 출전하여 공을 세우며 역적 행위를 하면 가족이라도 단칼에 베기도 한다. 평상시에 관직에 있을 때에도 임금의 정사(政事)에 협조적이지만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임금이라 해도 강하게 간하면서 고치기를 권한다. 공주와 억지로 혼인한 부마도 그녀에게 굽히지 않고 그녀를 소외시키거나 그녀의 아버지인 황제의 도덕성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가문과 왕실의 힘겨루기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문의 우위는 입증되는데, 그 단적인 정점을 가문의 일원인 딸이 황후가 되어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고 임금의 사랑을 받는 여성인 것으로 찍는다. 그녀의 선한 성품 앞에서는 악인도 악행을 제대로 저지를 수 없고 감화되거나 자멸하며, 최고의 권위자인 임금도 그녀 앞에서는 존경심과 애정을 가득 담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가문의 도덕성과 뛰어난 자질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초기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가문사가 위주가 되므로 가문과 왕실 간의 관계양상이 주로 혼인과 관련되거나 출전(出戰), 간언(諫言) 등에 그친다는 특징이 있었다. 〈소현성록〉 외에 〈유씨삼대록〉에도 충성과 간언, 협조와 견제 등의 역학 관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유씨삼대록〉에서는 간언이나 견제보다는 충성과 협조의 면이 두드러진다. 특히 현 황제의 제위 계승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자기 가문의 도덕성 우위 증명을 위한 논쟁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다르다. 공주혼과 관련해서도 공주의 시가에의 적응도와 순종과 온화함의 덕목을 잣대로 하여 긍정과 부정이 갈린다.

좀 더 후대의 통속화된 장편소설 〈조씨삼대록〉과 〈임씨삼대록〉에서는 초기 장편소설들과는 달리 가문과 왕실 간의 역학 관계 같은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공주(군주)혼은 흥미소로만 기능하며, 임금 등 왕실과 논쟁하거나 간언하는 장면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소현성록〉부터 〈임씨삼대록〉 등의 작품은 장편고전소설 중 초기작이면서 ‘삼대록계’라고 뷄을 수 있는 유형인데, 이들은 같은 장편소설이지만 〈완월회맹연〉이나 〈옥원재합기연〉처럼 가문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면에서 변별됨을 알 수 있다. 〈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은 거개의 장편소설들과는 다르게 당파간의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남주인공 가문이 반대당파에게 밀려 실세에서 밀려났다가 복귀하는 장면이 작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는 가운데 여주인공의 부친은 남주인공과의 혼약을 파기하고 남주인공 가문을 해치려 하다가 그 가문이 복귀되면 사위의 용서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들에서는 가문과 왕실의 관계보다는 가문대 가문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³²⁾ 이것이 정치적인 갈등과 연계되어 작가의 정치적 경향성까지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초기국문장편소설의 가문·왕실 간 관계양상은 한문장편소설인 〈옥루몽〉, 〈옥수기〉 등과도 변별된다. 〈옥루몽〉에는 왕폐병용론(王霸並用論), 탕평론(蕩平論) 등 정치적 사상이 구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소론과 남인의 사고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탈주자주의적 성향의 정치이념이며, 〈옥수기〉에는 제위정통론(帝位正統論), 중화주의(中華主義)가 구현되어 주자주의를 보임과 동시에 사마천이나 순자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등의 탈주자주의적 성향을 함께 보인다.³³⁾ 이들

32) 다만 〈완월회맹연〉에서는 정잡이 마선에게 잡혀 있는 영종 대신 불모로 잡히고 영종을 환국하게 하는 등의 공을 세워 이전보다 더 번성한 가문으로 거듭난다는 면에서 왕실과의 관계가 드러나기는 한다. 한길연, 2004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의 비교 연구: 정치적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1호 참조.

33) 조광국, 2003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 〈옥루몽〉, 〈옥수기〉, 〈난학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한문장편소설의 작가들은 남성지식인 독자층의 큰 관심사인 정치적 이념의 면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결연이나 가문 연대, 전란 진압 등의 서사 구조로 긴밀하게 구성해 냄으로써 소설적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는 여성향유층을 적극 고려한 초기 국문장편소설과는 다른 지향인 것이다.

주제어 : 초기 장편고전소설, 소현성록, 왕실, 군신관계, 가문의식, 충효, 공주 혼, 황후 혼

투고일(2015. 1. 29), 심사시작일(2015. 2. 10), 심사완료일(2015. 3. 4)

<참고문헌>

- 『소현성록』 15권 15책(이대 소장본).
김문희·조용호·정선희·전진아·허순우·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사, 2010.
한길연·김지영·정언학 역주, 『유씨삼대록』 1~4권, 소명출판, 2010.
- 구선정,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타자의식 고찰: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에 등장하는 공주들의 시댁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2012, 365~400.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50.
_____,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2005, 5~35.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구운몽>·<소현성록>·<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2009, 251~278.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1~436.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2009, 131~165.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론총』 51, 2009, 223~269.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2005, 37~68.
_____,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2007, 453~487.
_____,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떨 형상화와 의미: <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 45, 2009, 425~460.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 1998, 293~328.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별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 7, 2001, 87~113.
_____, 「19세기 고소설에 구현된 정치이념의 성향: <옥루몽>, <옥수기>, <난학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2003, 45~70.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2006, 91~129.
한길연,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의 비교 연구: 정치적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1, 2004, 161~194.

〈Abstract〉

The relational aspect between a family and the royal family and its meaning in early long-length Korean classical novels

Jeung, Sun-Hee *

This paper is about the study that examines the relational aspect between a family and the royal family in the early long-length Korean classical novel, which is <Sohyunsungrok>. This novel is written in the mid to late 17th century. It is about establishment, prosperity, and succession of the Sohs. The stature of the Sohs was positioned as a family of integrity and tried to practice filial piety as the most important virtue, but had a sense of loyalty that saves the nation in a great crisis at the same time. Besides, they were cooperative to the king but when there was a fault, they followed a custom by speaking plainly. These orientation and stature of the family appear intensively in narrations about a princess married to this family and a queen from this family. By a trial of strength between the princess and a king's son-in-law, the justification of the family's lifestyle and values was imposed and by a daughter being a queen, the morality and qualifications of the family were verified.

The dynamics between the family and the royal family were handled comprehensively by widely examining the main characters' political views, debates about setting of relation and duty between sovereign and subject, contents about a conflicting relation between loyalty and filial piety and about participation in war and a marriage becoming a queen, as well as a princess's marriage. Through this, the novel informs about values and views of life of writers and readers of the time.

Key Words : the early long-length Korean classical novel, <Sohyunsungrok>, royal family, the dynamics between the family and the royal family, loyalty and filial piety, a princess's marriage, a marriage becoming a queen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Hongik University.